

화순 출신 ‘여자 알리’ 임애지, 도쿄올림픽 金 꿈꾼다

지난해 세계유스복싱선수권
한국 여자 선수 최초 우승

중학생 때 군수배 제패
빠른 스텝·윈손 스트레이트
치고 빠지는 기술 탁월
새벽부터 밤까지 훈련 매진

화순 출신 ‘여자 알리’임애지가 도쿄 올
림픽 금메달을 꿈꾼다.

지난 해 11월 인도에서 열린 세계여자유
스복싱선수권에서 대한민국 여자 복싱 최
초로 금메달을 딴 임애지(20·천사체육관)
는 “관장님과 사범님의 도움으로 좋은 결
과가 나온 것 같다. 앞으로 2020년 도쿄올
림픽을 비롯해 여러 국제대회에서도 좋은
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며 앞으
로의 각오를 밝혔다.

임애지는 지난해 11월 인도 구와하티 경
기장에서 열린 세계 여자 유스 복싱선수권
대회 60kg급에서 빅토리아 카틀로(이탈리
아)를 상대로 4-1 판정승을 거두며 금메달
을 목에 걸었다.

임애지의 금메달은 1985년 루마니아에
서 열린 제3회세계주니어복싱선수권대회
에서의 황경섭(당시 충주농고) 이후 유스
급(청소년부)에서는 32년 만이다. 또 여자
선수로는 청소년, 성인 무대를 통틀어 최
초여서 더욱 뜻깊다.

임애지는 지난 인도대회와 제18회 자카
르타-팔렐방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의 날
짜가 겹치면서 아시안게임에는 출전하지
못하게 됐다. 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
대표선발전에 도전할 수 있는 만큼 올림픽
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.

화순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
년 때까지 간간히 취미로만 복싱을 해 온
임애지는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선수생활
을 시작했다.

당시 중학생 신분이라 전국대회에 출전
하지는 못했지만 화순군수배 복싱대회 등
지역 대회에서 우승했다. 그리고 전남기술
과학교 1학년 때인 2015년 3월 경남 남해
에서 열린 전국 중별 신인대회 -51kg급, 4



화순 출신 복서 임애지가 화순읍 천사체육관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훈련에 열중이다.

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전국복싱대회 여고
부 -54kg급에 이어 8월 45회 대통령배 전
국시·도 복싱대회 -57kg급에서도 금메달
을 따내며 두각을 나타냈다. 2016년에도
금메달 행진을 하는 등 자신의 실력을 세
상에 알렸다.

빠른 스텝에 이은 윈손 스트레이트를
주무기로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임애지는
치고 빠지는 기술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
고 있다.

타고난 기량은 아니다. 끊임없이 공부하
고 노력한다.

이른 새벽 기상해 1시간 정도 웨이트 트
레이닝을 한 후 오후에는 다른 선수들과
화순전남대병원과 알외산 사이의 도로를
3바퀴(약 9km)를 뒀 후 돌아온다.

이러 스텝박스-줄넘기-덤벨웨이트-샌
드백스파링으로 이어지는 ‘슈퍼셋트’를
하고, 저녁에는 스파링을 통해 자신의 훈
련량을 채워나간다.

훈련이 끝난 뒤에도 임애지는 바쁘다.
자신과 체구가 비슷한 남자 선수들의 경기
영상을 보며 자신의 기술과 움직임들을 비교
해 수첩에 적어보고, 뒀 때까지 계속 연습
하는 등 꾸준히 복싱에 대한 열정을 쏟고
있다.

한국체육대학교 입학의 앞둔 임애지는
한 단계 더 성장하겠다는 각오다. 그는 고
향인 화순을 떠나 더 넓은 무대에서 뛰며
각종 국제대회와 올림픽 출전을 위해 분

주히 노력할 계획이다.

여기에 어릴 적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던
임애지는 지난해 라섹 수술을 하면서 더욱
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.

임애지는 “대학에 경쟁한 선배들이 많
은데 무척 기대된다. 잘 하는 사람보다 열
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대중들에게 기억
되는 복서가 되고 싶다”며 포부에서도 그
만의 성실함을 알렸다.

/글·사진=김진수기자 jeans@

“류현진 5선발”

美 매체 전망



류현진(31·로
스앤젤레스 다저
스)이 2018년에
도 다저스 5선발
로 시즌을 맞이할
전망이다.

미국 오렌지카
운티레지스터는 10일 다저스 선발 로
테이션을 점검했다. 류현진은 클레이
턴 커쇼와 리치 힐, 알렉스 우드, 마에
다에 이어 ‘5선발’로 언급됐다.

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“자유계
약선수(FA)인 다르빗슈 유와 계약하
지 않는다고 해도 선발 투수는 충분하
다. 커쇼와 힐, 우드, 마에다, 류현진이
건재하고 신에 워커 블러와 브룩 스튜
어트, 데니스 산타나, 톰 클러, 로스 스
트리플링, 후반기 복귀가 예상되는 홀
리우 우리아스도 있다”고 기존 5선발
과 대체 자원들을 거론했다.

이에 앞서 MLB닷컴도 류현진을 다
저스 5선발로 꼽았다.

일단 류현진은 신예들보다 먼저 선
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.

2015년 어깨 수술을 받고 주춤했던
류현진은 2017년 5승 9패 평균자책점
3.77로 재기에 성공했다. 후반기 성적
은 2승 3패, 평균자책점은 3.17로 더
좋았다. 불규칙한 등판을 감수해야 했
지만 126.2이닝을 던져 선발의 명성을
되찾았다.

다르빗슈가 다저스를 떠날 가능성
이 크고, 선발 요원 브랜던 매카시와
스콧 카즈미어가 트레이드돼 류현진
의 입지는 더 굳건해졌다. 물론 ‘5선발’
이란 평가가 긴장감도 안긴다. 지난해
류현진은 커쇼는 물론 힐과 우드에 밀
려 불규칙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.

블러와 스튜어트, 산타나 등 다저스
가 주목하는 신예들이 성장하면 류현
진을 위협할 수 있다. 어깨 수술을 받
고 후반기 복귀를 준비하는 우리아스
도 류현진의 잠재적인 경쟁자다.

류현진에게도 2018년은 특별하다.
올 시즌이 끝날면 류현진은 FA 자격을
얻는다. 2018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
하면 류현진은 대형 계약을 노리고 협
상 테이블을 주도할 수 있다. /연합뉴스

‘아이스하키’ 불모지 광주, 초등생들이 일냈다

‘아이기스’ 전국체전 4년만에 첫 승

인천 ‘체드윅’ 5대 0 꺾어
전용 아이스링크장 없어
염주빙상장 등 전전
서울 야간 훈련·中 전훈
‘할 수 있다’ 열정으로 뚫뚫
오늘 서울 자이언트와 2회전



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하
키 광주대표로 출전한 초등 아이스하키
팀 ‘아이기스’(AEGIS)가 동계체전 출
전 4번째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.

초등 하이스하키팀 아이기스는 10일
오후 서울 목동실내빙상경기장에서 열
린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하
키 초등부 예선전에서 인천대표 ‘체드
윅’을 상대로 5-0으로 승리했다.

동계스포츠 불모지인 광주에서 2013
년부터 동계체전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
이후 무승을 기록 중인 아이기스로서는
아날의 승리가 의미 깊다.

1피리어드 때 박민우(4년)와 조영준
(6년)이 각각 득점에 성공해 2-0으로 앞
서 나가던 아이기스는 2피리어드 때 배
원기(3년), 홍성민(5년)이 추가 득점에
성공했다.

아이기스는 인천의 거듭되는 공세에
도 골리 이동근(2년)이 선방하며 실점
을 허용하지 않은 가운데 3피리어드에
주장 박건하(6년)의 쐐기골에 힘입어 5

대 0 대승을 거뒀다.

아이기스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동계
체전 광주지역 예선대회에서 울브스
(Wolves)를 접전 끝에 4대3으로 꺾고
광주 대표로 선발됐다.

지난해 제니스리그 저학년 TOP 우
승, 제4회 U9 전국아이스하키대회 3위,
제3회 유소년 제니스배 하키토너먼트
저학년 3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꾸준
히 성적을 거뒀었다.

전용 연습장이 없어 광주 염주빙상장
에서 다른 빙상 종목들의 훈련시간을
피해 야간에만 훈련하지만 ‘할 수 있다’
는 열정으로 꾸준히 훈련에 몰두했다.

특히 동계체전 출전을 앞두고는 광주

와 서울을 오가며 야간 특별훈련을 실
시했고 8일간의 중국 전지훈련까지 추
가하며 경기력 향상에 매진했다.

지난 2007년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창
단된 아이기스 아이스하키팀은 유지부,
초등부, 중등부 40여명이 소속되어 활
동하고 있다.

문필영 아이기스 감독은 “첫 승리를
위해 열심히 뛰어 준 선수들이 자랑스
롭다. 앞으로 있을 경기도 최선을 다해
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첫 승
소감을 밝혔다.

아이기스는 11일 낮 12시 서울 자이
언트와 2회전 경기를 치른다.

/ 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‘스키 요정’ 美 시프린 “5관왕 보러와요”

월드컵 회전 우승 시즌 10승

23세 이전 통산 41승 달성

사상 최초 한 시즌 5승도



귀여운 외모로 ‘스키 요정’이라는 별명
을 지닌 미카엘라 시프린(23·미국)이 평창
올림픽 5관왕에 도전한다.

시프린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
최연소 여자 회전 금메달리스트에 등극한
뒤 “평창에서 목표는 스키 5관왕”이라고
당한 목표를 밝혔다. 사람들은 10대 소녀
의 지나치게 큰 꿈이라고 생각했다. 그러
나 시프린은 이번 시즌 주 종목인 회전뿐
만 아니라 활강까지 제패하며 점점 목표에
다가가고 있다.

시프린은 9일(현지시간) 오스트리아 플
라하우에서 열린 2017-2018 국제스키연
맹(FIS) 알파인 스키 월드컵 여자 회전
에서 우승을 차지해 시즌 10승을 채웠다.

월드컵 통산 41승째를 거둔 시프린에 대
해 AP통신은 “23세 생일 이전에 41승을
넘긴 스키전수는 안네마리 모저 프릴(오스
트리아·62승) 뿐이다. 또 사상 최초로 같
은 해(2018년) 5연속 우승을 달성한 여자
선수도 이름을 올렸다”고 소개했다.

여자 알파인 스키 월드컵 최다승 기록
보유자 린지 본(78승)은 만 26세에 40승을
채웠다. 시프린의 지금 페이스라면 본은
물론이며 남자 최다 우승자 잉에마르 스텐
마르크스(스웨덴·86승)의 자리까지 넘볼 만
하다.

이번 시즌 시프린은 회전과(5회) 대회전

(2회), 평행 회전(2회), 활강(1회) 등 4개 종
목에서 우승했다.

회전과 활강은 같은 알파인 스키지만,
전혀 다른 종목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성격
이 크게 다르다. 회전은 짧은 구간에 촘촘
하게 박힌 기문을 통과하는 기술 종목이
며, 활강은 최고 시속 160km까지 나오는
스피드 종목이다.

시프린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레이크 루
이스에서 열린 활강 경기에서 사상대 꼭대
기에 섰다. 불과 4번째 출전에 달성한 진기
록이며, 개인 첫 활강 우승이다. 덕분에 시

프린은 올림픽 5관왕에 도전할 자격을 얻
었다.

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는 회전, 대회
전, 슈퍼대회전, 활강, 복합(회전+활강)
등 5개 종목이 열린다. 이중 시프린이 월
드컵에서 우승해본 경험이 없는 종목은 슈
퍼대회전뿐이다.

역대 올림픽 알파인 스키 단일 대회 최
다 메달리스트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
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
득한 야니카 코스텔리치(크로아티아)다.

/연합뉴스